

전주시민축구단, 홈 3연승 도전

내일 전주종합경기장서
K4리그 양평FC와 경기

전주시민축구단 홈경기 3연승에 도전한다. 전주시민축구단은 오는 9일 오후 2시 전주종합경기장에서 2022 K4리그 7라운드 양평FC와 홈경기를 갖는다. 전주는 지난 3일 고양K1축구단과의 원정경기에서 3대2로 패해 3승 1무 2패로 리그 5위를 기록하고 있어 상위권 진입을 위해 승리가 꼭 필요하다. 이번 홈경기에서 전주는 무승부를 통한 승점 1보다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전술과 공격적인 축구로 승리를 거두겠다는 각오다. 전주는 이날 리그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김도형(2골, 7도움)이 공격 선봉에 나서고 양태렬, 박동주, 김종진이 상대 골문을 노린다. 중앙에서는 신윤호와 김태연이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공격에 활력을 넣을 전방이며, 수비에서는 심원성과 이요섭, 여인혁, 이주성이 상대의 공격을 막는다. 골문은 신에 이지성이 상대 공격을 차단하고



전주시민축구단 김도형(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

무실점에 도전한다. 양영철 전주시민축구단 감독은 "지난 경기에서 어렵게 패했지만 선수단 분위기는 아주 좋"다며 "홈경기인 만큼 막강함으로 승리를 거둬 팬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야구의 명문 전라중학교 야구부가 지난 4월 4~6일까지 3일간 열린 전북 예선전에서 우승을 차지, 오는 5월 열리는 제1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전북 대표로 출전하게 됐다.

‘강한 집념·노력, 결실 맺다’

전라중 야구부, 전국소년체전 전북 대표로 출전

야구의 명문 전라중학교(교장 권희숙) 야구부가 지난 4월 4~6일까지 3일간 열린 전북 예선전에서 우승을 차지, 오는 5월 열리는 제1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전북 대표로 출전하게 됐다. 이는 6년 만에 이룬 쾌거이다. 전라중 야구부는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 클럽전환 정책에 따라 2021년 8월 전라중학교 야구부에서 (사)전라베이스볼클럽으로 전환된 첫 번째 사례로, 과거의 한 칸 차이로 미진했던 경기력을 뛰어넘기 위해 지도자와 어린 선수들이 피땀 어린 노력을 펼쳐

온 결과이다. 이번 대회에서 1차전은 1대 2로 압승을 거뒀으며, 2차전 역시 7대 0 폭드래임으로 가볍게 이기고, 3차전은 지난 5년 동안 우승했던 군산중을 만나 명승부를 펼쳤다. 역전의 역전을 거듭했지만 7회까지 7대 7 동점으로 마무리돼 연장전에서 승부를 가리게 됐다. 연장전에 돌입해 전라중은 8회초 1점을 추가해 8대 7을 만들었고, 8회말 수비에 성공하며 승리의 트로피를 거머쥐게 됐다. 최현규 야구부 감독은 "어렵고 힘든 코로나

상황에서도 강한 집념과 열정적인 지도를 해주신 코칭 스태프와 성실하게 훈련을 소화해 준 선수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있을 제16회 전국소년체전 본선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전라중학교 권희숙 교장은 "군산중과의 경기는 명승부였다. 끝까지 강한 집념력과 정신력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준 학생선수들이 너무 대단하고 자랑스럽다"면서 "이번 대회에서 얻은 경험과 자신감으로 앞으로 더 많은 성장을 해 나갈 것"이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전라중 야구부는 최현규 감독, 김민철 수석코치, 이재무·오승진 코치의 지도 아래 1학년 6명, 2학년 12명, 3학년 15명의 학생선수가 활약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도내 14개 시군 체육인들, 전북 체육 발전 ‘한마음’

전북체육회, 회원종목단체장과 정책간담회… 릴레이 진행 중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해 전북 14개 시·군 체육인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7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전북 체육 발전을 이루고 협업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 현재 도내 14개 시·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장과 정책간담회를 전주시체육회를 시작으로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다. 정책간담회는 지난해 추진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의 사정으로 늦춰지다 최근 열리게 됐다. 이번 간담회는 각 시·군 종목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전북 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체육영재발굴프로젝트인 체육 꿈나무 선발대회 등도 체육회의 주요 업무를 시작으로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통해 각 시·군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시군 회원종목단체장들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체육 발전을 이



전북체육회는 전북 체육 발전을 이루고 협업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 현재 도내 14개 시·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장과 정책간담회를 전주시체육회를 시작으로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강선 회장은 "정책간담회 자리를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은 가지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전북체육 발전을 위해 각 시군의 의견을 잘 수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궁도인들, 진안고원에서 ‘활시위’

전국 규모 궁도대회·승단대회 11일까지

진안군 궁도협회(회장 이재선)는 7~11일 5일간 진안군 국궁장에서 전춘성 군수 협회 관계자 회원 등 1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규모의 궁도대회와 궁도승단대회가 함께 열렸다. 7~8일까지 이틀간은 '제5회 전국 궁도종별 선수대회'가 시·도 대항전과 개인전으로 나뉘어 열렸다. 9~11일은 3일간은 '제16회 전국 남녀 궁도 승단대회'가 전국 궁도인 1,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자웅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대한궁도협회(회장 김창순)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궁도협회, 진안군 궁도협회가 공동 주관해 궁도 저변확대 및 전통무예 계승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앞서 진안군은 국궁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사업비 19억원을 들여 총 4개 사관을 보유한 국궁장을 현대적 시설로

재조성했다. 군은 국궁장을 개장한 지 2년만에 코로나 19가 감소세로 접어들어 추세에 진안군 최초 전국규모의 궁도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는 게 군 관계자는 설명이다. 대한궁도협회 관계자는 "궁도는 우리 민족의 상징적인 무예이며 정신수양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스포츠"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궁도가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대회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모인 궁도인들이 평소에 연마한 기량을 맘껏 발휘해 궁도의 진수를 선보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마يا산을 비롯한 진안군 곳곳의 명소도 함께 둘러보는 멋진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준비 만전

군산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열

군산시는 '제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성공 개최를 위해 민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각 분야 및 기관별 전문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협조사항 등을 공유했다. 지난 6일 실시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에는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경찰서, 군산해양경찰서, 군산소방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농어촌공사, 군산교육지원청, 군산시자원봉사센터, 군산시체육회 등 10개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오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비응항 선유도, 은파호수공원 등 군산시 일원에서 요트, 수상·핀수영, 철인3종경기, 카누 4개 정식종목을 포함해 번외·체험행사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무협의회에 기관별 협조요청 사항에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각 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해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수시로 발생하는 협조사항에도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포르투갈과 만나는 벤투 "호날두 원맨팀 아니다"

조 추첨 결과에 "어려운 조 편성... 16강 진출 위해 최선을 다할 것"



2022 카타르월드컵 본선에서 조국 포르투갈을 적으로 만나는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이 세계적인 골잡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뿐만 아니라 팀 전체를 상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투 감독은 7일 오후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 1층 강당에서 열린 미디어 간담회에서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호날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고, 제가 지도해본 선수 중 가장 뛰어난 선수였다"면서도 "어떤 팀을 상대하든 한 선수만 걱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9위인 한국은 지난 2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카타르월드컵 본선 조 추첨 결과 포르투갈(8위), 우루과이(13위), 가나(60위)와 함께 H조에 편성됐다. 한국은 11월 24일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 뒤 28일 가나, 12월 8일 포르투갈과 차례대로 만난다. 최상은 아니지만 스웨인 독일과 한 조에 속한 일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해볼 만하다는 평가다. 특히 벤투 감독은 조국 포르투갈을 적으로 만나게 됐다. 그는 선수일 때 1992년부터 2002년 한일월드컵까지 포르투갈 대표로 뛰었고, 지도자로 변신한 뒤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포르투갈 대표팀 사령탑인 페르난두 산투스 감독은 벤투 감독의 후임이기도 하다.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 감독 시절 호날두를 직접 지도한 경험이 있다. 그 때문에 누구보다 호날두에 대해 잘 아는 지도자이기도 하다. 그는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호날두를 지도했던 한 선수만 고려해선 안 된다. 포르투갈은 여러 부분에서 뛰어난 팀이고 훌륭한 선수들이 많다.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호날두가 최고지만, 팀 전체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컵 본선에서 조국을 상대하게 된 벤투 감독은 "조 추첨 전에 포르투갈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었다"며 "정신적으로 조금은 다른 기분이 드는 건 사실이다. 처음 조국을 상대하게 됐고 이는 클럽팀에서 전 소속팀을 상대하는 것과는 다른 경험"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포르투갈전도 하나의 경기이고, 휘슬이 울리면 보통 경기와 같이 진행될 것이다. 새로운 경험이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평소 하던 대로 준비하고 최선을 전라를 쏟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포르투갈 산투스 감독은 FIFA와 인터뷰에서 벤투 감독의 한국과 포르투갈이 16강에 함께 올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벤투 감독도 "산투스 감독과 같은 생각이 같고 같다. 하지만 포르투갈은 우리보다 16강 진출 확률이 높은 팀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접근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카타르월드컵 조 추첨 결과에 대해선 "어려운 조에 편성됐다. 물론 본선에 쉬운 조 편성은 불가능하다. 좋은 3팀과 만나게 됐고, 그중 포르투갈과 우루과이의 16강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물려줄 생각이 없다. 최대한 경쟁하고 싸우겠다"고 했다. /뉴시스